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 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청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폭염속에서 말씀의 샤워를

-여름성경학교 막바지에-

올해의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7월 초순 대학부, 소망부, 사랑부, 새가족부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중등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각각 수련회 또는 여름성경학교를 마쳤다.

이번주간에는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수련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다.

금년도 총 주제는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미 마친 부서에서는 차분히 열매를 맺는 기간을 가져야 겠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소기의 목표에 이르도록 힘써 기도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말씀의 샤워로 영육이 새롭게 단장되는 기회를 만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분반공부시간에...

농촌 전도대 내달 8일부터 4일간

- 전도봉사대원은 청·장년 중심 45명으로 정예화키로 -

농어촌 교회 지원을 위한 농촌 전도대 봉사가 올해는 8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4일간 경북 예천 상리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교회는 전도대 조직을 전도, 의료, 미용, 봉사, 교육, 찬양, 행사·홍보, 재정 등 9개 분과로 세분화하고 참여 인원은 효율적인 봉사가 가능하도록 예년에 비해 소수 정예화한 45명 가량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촌봉사대는 보다 실제적이며 현지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 전도대 참가자는 봉사가능한 전교인이 대상이며 접수는 사무국을 통해 받고 있다. 올해 농촌봉사대의 주제는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제 찬송은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259장)로 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전도위원회는 5명의 답사팀을 구성, 현지에 파견하고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예천 상리교회**: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573-1번지 소재 전형적인 벽지교회이다. 거리는 서울에서 차로 약 3시간 30분정도 떨어져 있다. 교인은 현재 장년 8명, 중고등부 6명, 아동부 13명 등 총 27명이 출석하고 있다. 설립된 지 24년 됐다. 인근주민은 약 115세대에 이른다. 교회 좌우편으로 산간 농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소백산맥의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름다운곳이다. 답사팀에서는 현재 교회 부흥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담임교역자 천광훈 전도사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의욕적으로 교회부흥을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예천 상리교회는 우리 교회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의 자매교회이다.

▶**농촌전도를 위한 물품 모집**: 농촌전도대 활동과 관련, 전도용품, 의료·미용기구, 생필품 등을 모으고 있으며 접수 및 문의는 사무국.

농촌 전도대 봉사 지원자 교육 일정

- 1차 - 7월 23일(주일) 오후 3:30 1층 예배실
- 2차 - 7월 30일(주일) 오후 3:30 1층 예배실
- 3차 - 8월 4일(금) 오후 7시 403호
- 4차 - 8월 6일(주일) 오후 3:30 1층 예배실
- 파송예배 - 8월 6일(주일) 찬양예배실

다락방 모임 방학한다

- 8월중 -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다락방 가족들의 모임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무더위로 손님접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8월 첫주부터 한 달 동안 다락방 모임을 중단키로 했다. 교구위원회(위원장 김영준 장로)는 휴가중이지만 계속 모이는 다락방을 위해 다락방 공부교재를 발행하여 교구 목사님 또는 사무국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주 다락방 모임에서는 피차 연락망을 철저히 점검하고 8월중에는 매주 금요일 전화심방을 하기로 한다.



산헤립의 도전장과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 37장 8~20절



이종운 목사

“앗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 립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 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앗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벌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센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라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팔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 놓고 여호와께 기도 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전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책망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라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 37:8-20)

앞서 랍사게를 보내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위협한 산헤립은 이번에는 도전장을 보냅니다. 그 도전장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하므로 속히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사 36:4~20).

1. 세상은 여호와의 집된 종교를 무력하게 여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성공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이루어진 줄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앗수르 왕은 열국들이 앗수르에게 복속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된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력하게 여겼습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 받으리라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심 전력으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소식이 산헤립에게는 무언가 불안감을 준듯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할수록 산헤립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급기야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산헤립이 무력을 써서 침공을 하니 구스 왕은 그를 치기 위해 싸움터로 나왔습니다(9절). 전쟁을 일으킨 자는 결국 전쟁으로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불경스러운 말이 나쁘나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말로 행복할 것을 요구하던 랍사게가 이제는 문서로 남깁니다. 기록에는 고의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이 더욱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말 보다 더 멀리 퍼지고 오래 남게 되어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서화된 무신론과 무신앙은 반드시 추방될 것입니다.

앗수르 왕은 온 땅을 멸할 때에 하나님의 땅도 멸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열방의 신들이 도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도 그리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12절).

2. 성도는 하나님을 목독 당이시는 일을 저 일원통이 여긴다

성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드러나 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헤립으로부터 받은 도전장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14~20). 앗수르 침략 사건과 하나님을 목독한 일의 차 초지종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갈 자유와 거기에서 말할 자유는 여호와와 백성이 갖는 특권입니

다. 환난과 위협의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므로 말할 필요도 없이 기록된 문서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허심탄회하게 말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자신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모든 내용과 문제를 그대로 들고 나오기를 허락하십니다.

위기와 환난날에 우리가 찾을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계약신, 참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위기와 환난날에 우리가 찾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대주재이시며 이스라엘 뿐 아니라 자연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16절)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만국의 하나님으로 만국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 개념은 성경의 기본사상입니다(신 6:4, 45:22, 속 14:9, 막 12:29, 요 17:3).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에게까지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난을 만난 그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하나님을 책망하느라고 사용한 거짓된 말을 반박합니다. 그에게는 자기 나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당하는 일 보다 하나님이 회복 당하시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열국의 신들은 참신이 아니고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앗수르 침략을 방지하지 못하였습니다(19절).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앗수르 침략에서 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기도했습니다(20절).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철 건강상식

「크리스찬의 건강 비법」

(4교구 권사 이운진)

보신을 한다고 깊은 산 속에 그물을 쳐서 별 별 동물을 마구 잡아들이며 천연기념물까지 잡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산 동물의 목을 찢러 뜨거운 피를 마시겠다고 줄을 서는 세태 덕분에 「고지혈증」이란 병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일본에는 약 3천만 명의 환자가 추정되고 우리나라에도 건강진단 결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지방질 과다 섭취(레3:17), 과식 및 편식, 운동부족과 스트레스 증가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혈액 중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증가로 悪콜레스테롤의 양이 증가하는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콜레스테롤이 동맥에 쌓이면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지고 구멍이 좁아져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질병

을 유발시킨다. 또 한 원인인 중성지방은 식이 성지질로서 고칼로리, 설탕, 술 등이 주원인이며 지방간, 췌장염을 일으키는데 여성에게서의 주원인은 케이크, 과자류 등 보이지 않는 설탕이 주범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치료법의 핵심은 식이 요법(행9:19)과 운동(딤후4:8)으로 압축된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잠17:22) 지방질 섭취를 줄이고 술(엡5:18), 담배를 피하고 대두, 마늘, 미산, 토마토, 버섯, 해조류, 곤약, 현미 등을 많이 섭취하고 채소와 달리 과일의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B 등의 영양 요법을 권장하며 단백질, 지질, 당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의 6가지 영양소를 1일 30종류 이상의 다양한 식품을 고루 섭취하되 과식은 절대 삼가야 한다. 주부들의 장바구니가 가족

의 건강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세심한 배려가 요청되며, 식사는 늘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하는 것이 좋다(행 2:46). 얼마 전 미국국립보건원 등 전문연구기관들이 2년 동안 연구하여 발표한 현대병 예방을 위한 "통합 식사지침법"은 별다른 비방이 아니다. 전체식사에서 식물성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다. 과학에 관한 책은 몇 년마다 새로 사지 않으면 안된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오류로 더 이상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증보판이 나온다. 그러나, 영원한 초판인 신·구약 66권은 인간의 질병에 관한 모든 처방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출15:26)이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과학도들은 그 진리를 성경에서 찾고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겸손히 기도하며 증보판을 써가고 있다.

“최고의 처방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여 · 름 · 수 · 려 · 회 · 의 · 물 · 마 · 기 · 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대학부/김예린)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지 벌써 3년이다. 대학생이 되면 조금은 뭔가를 발견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결국엔 세상이란 어딜 가나 똑같다는 것만 알았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작은 긴장감이나 흥분을 느끼게 해주진 못했다. 이번 수련회도, 반복되는 하루하루는 아니지만, 일상 같은 것. 어김없이 습관처럼 나는 당연히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별로 큰 기대감도 없이 수련회에 임하게 되었다.

처음 수련회장에 도착했을 때 느낀 것은 장소하나를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라는 점이었다. 그야말로 '별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훌륭(?)했다. 각 방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화장실은 가정집에 있는 화장실과 다를 바가 없으며 깨끗한 침구들... 그러나 장소가 좋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수련회장에 가서 단 한가지 바란 것이 있다면 이 수련회에 나 스스로가 목적을 갖고 임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무언가 소망 한가지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마음이 간절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큰 뜻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바램과는 상관없이 아무 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개회예배로 수련회가 시작되면서, 거의 다 른 수련회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색다른 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바로 은사 찾기였다.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찾는 테스트 비슷한 것이었는데, 나의 은사는 바로 영분별과 믿음이었다. 영분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은 왜였을까..., 물론 그 테스트가 완전히 맞다고는 할 수 없다. '확실'하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갑자기 아무런 의미도 없이 보낸 세월들이 아깝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3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다. 그것을 나는 오직 나만의 편의. 어쩌면 매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제외시킨 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나..., 교회에서만 하나님..., 교회에 포함된 인생이 아닌 인생에 포함된 교회였던 것이다. 봉사의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의 사람들처럼 교회라는 곳이 딱딱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마치 나사가 빠진 것처럼 나는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

고, 그 마음에 다시 새롭게 못을 박아준 것은 바로 은사 찾기였던 것이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쓰임을 받고 싶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다. 나의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미소를 보여드리고 싶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가 가고 싶다고 느끼는 아주 간절한 순간이었다. 그 마음은 캠프파이어 시간에 터진 것 같다. 나는 회개의 기도와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쩌면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었고, 뜻밖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기도해 주었을 때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가식의 장소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았다. 수련회장에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막상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면 처음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생각난다. 수련회라는 것은 사람을 한 번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한꺼풀씩 벗겨나갈 수 있도록 기회(?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다.)를 주는 곳이라는 것이다. 나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한꺼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선 느낌이다. 내 무감각함으로 상처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겠지만, 또 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믿고 하나님께 다가 설 수가 있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오정수(장로·건축위원장)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이 말은 내가 오즈 음 꿈속에서도 외치는 고백이요, 간증이다.

이 존영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도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연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어김없이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환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새 날을 시작한다.

남들은 나를 보고 얼마나 수고 하느냐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자주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만큼 편안하고 기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나와 보라고 하고 싶다. 교만해서가 아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다. 오즈 음 내가 아침마다 출근하여 하루종일 일하는 곳은 우리 교회 건축현장이다. 직장일 회사일은 난 모른다. 누군가 더 좋은 경영자가 회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라고 남들이 말들을 한다.

자랑하고 싶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면서 불신앙과 불의와 불충의 죄를 범함으로 그들은 4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고난의 행군을 해야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우리의 공정을 시간적으로 단축시켜 주실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공익성을, 역사적으로는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체험케 하신다. 신 불신간에 서울교회 예배당 짓는 일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어진다는 말이 사방에서 들려지니 어찌 감사치 않을소나.

이것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 국가를 위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오찌 가문에 황희정승을 했다고 자랑한들 무슨 빛이 나겠으며, 재벌이 되었다고 무슨 뜻이 있겠는가. 헛되고 헛된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위원장으로 한 시대를 살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고, 축복이 아니겠는가.

2000년 12월 25일 새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나는 이 중책을 완수하고 쓰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안식년을 맞이할 것이다. 아! 내 평생에 또 한번 영혼의 집을 새로 짓는 건축위원장이 되는 꿈을 꾸면서 내사랑 서울교회를 섬기며 살리라.

상조위원회 봉사지원자 모집

우리교회 상조위원회에서는 은혜로운 사역의 일익을 담당할 봉사자를 찾고있다.

위로예배시, 입관예배시 그리고 천국환송예배시에 봉사할 수 있는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는데 지원서는 사무국에 준비되어 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서상근 집사·김예환권사 가정

건축현장 방문팀 : 무지개회

24일(월) 새벽기도회후새 예배당건축현장방문

동성

- 김창수 선생(8교구)은 음향실 담당직원으로 발령되다.
- 박정심 선생(5교구)은 출판부 임시책임자로 수고한다.
- 박은경집사(이종혁집사)는 캐나다로 8월 1일 이민(유학)을 떠난다.

남은 수련회 일정표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주제
고등부	이중윤 목사, 이성득 목사	7월 24일(월)~26일(수)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그리스도
청년부	이중윤 목사, 고경선 목사	7월 31일(월)~8월 3일(목)	산음휴양림(경기도 가평)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회	이중윤 목사	8월 15일(화)	미정	우리교회의 소망이신 예수그리스도

새 예배당 건축소식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이번주 8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계획하고 노출 콘크리트 거푸집제거, 설비, 방수 및 내장 작업을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의자와 강대상 설계에 들어가 있으며 벽돌은 8월초순부터 2개월 정도 쌓을 예정이라 한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해
2.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
3. 농어촌전도대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